

주요용어 : 심상치료, 유방 절제 여성, Type C 성격특성, 대처전략

심상치료가 유방 절제 여성의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에 미치는 효과

김 은 심* · 배 행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간 유방암의 급격한 증가로 2001년 여성 암 발생률 1위에 올랐다. 2001년 여성 암 발생 중 유방암 비중은 15.3%로 위암보다 높은 16.1%로 1996년에 비해 두배 정도 늘어났다. 각종 암에 대한 사망은 전체사망 중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0.1%에서 2000년 23.7%로 3.6%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25%로 증가하여 4명당 1명은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특히 암은 현재 30대 이후 중, 장년층의 주요사망 원인 1순위를 점하고 있는 중요한 질환이다(Annual report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이중 유방암은 주로 서구 지역에서 호발하며, 한해에 발생하는 여성암 중 유방암이 30%이상을 차지하여 여성암 발생 1위로, 우리나라에서도 위암에 이어 유방암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40-55세 여성 암 사망원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에게 유방은 특별한 심리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커다란 충격과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 상실을 경험하여 정서상의 위기를 초래하므로(Rutherford, 1988), 유방수술을 받은 환자는 분노, 우울증, 희망감 상실, 거부감, 외로움, 무가치감을 보인

다(Scott, 1983). 특히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의 성격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감추고 억제하는 C유형 성격특성으로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자신의 방어능력을 조금씩 잠식하여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Pennebaker, 1999). 그러므로 억압된 무의식 세계를 저항감 없이 자연스럽게 표출하여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돕고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심리치료방법이 심상치료라고 생각된다.

심상치료는 마음속에 잠재해 있던 미해결된 억압된 감정의 용어들이 무의식 속에서 의식되지 않고 억눌린 상태로 잠재되어 있다가 방어기제들에 의해 하나의 상으로 떠오르게 하여 부정적 감정들이 심상을 통하여 문혀 나오게 하는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이러한 심상치료는 마음이 지닌 자연적인 힘을 건강과 치유의 과정으로 이끄는 것(Choi, 1999)이며, 정신적인 상의 시각화를 통하여 생리적, 신체적 및 심리적 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Achterberg and Lawlis, 1982).

한편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여성 중에 C유형 성격 특성을 지닌 여성들은 도피와 부정과 같은 소극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내면화하여 슬픔과 같은 기전으로 감정을 억제하며,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격리된 상태로 스트레스를 다루는 대처가 미약하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인 억압과 거부감정은 말초혈관 세포를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교란시켜 악성암의 발생을 야기시킨다.

*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경상대학교 건강과학 연구소, 노인건강 연구센터

그러므로 심상치료는 암에 대항하는 강력한 요인인 분노 표출을 도우므로 Type C의 성격특성과 같은 억압된 적대감과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긍정적 정서로 전환되도록 돕는다. 따라서 유방암 환자의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말초혈관 세포가 정상화되어 면역기능 활성화를 초래하므로 유방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Cooper & Faraghen, 1992).

이에 본 연구자는 유방 절제 여성을 위한 심상치료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유방을 절제한 여성의 성격특성과 대처기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심상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방 절제 여성의 성격특성과 대처기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심상치료가 유방 절제 여성의 Type C 성격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2) 심상치료가 유방 절제 여성의 대처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제 1 가설 : 심상치료를 받은 유방 절제 여성의 Type C 성격특성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낮을 것이다.
- 2) 제 2 가설 : 심상치료를 받은 유방 절제 여성의 대처전략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심상치료가 유방 절제한 여성의 type C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Figure 1).

〈Figure 1〉 Research design

Group	Pretest	Treatment (6 Wks)	Posttest
experimental Gr.	E ₁	X(1-12)	E ₂
control Gr.	C ₁		C ₂

X : Imagery Therapy 12 Session(1 Session - 120 min.)

2. 연구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J시 소재 1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입원하여 수술 받은 후 추후관리를 받기 위해 외래를 방문한 자를 임의 선정한 후 각 군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심상치료에 참여하기를 수락한 실험군 19명과 대조군 18명, 총 37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실험군 19명중 대상 포진으로 중도탈락한 자 1명과 4회 이상 참여하지 못했던 자 3명으로 총 4명이 탈락되어 1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대조군은 18명중 개인적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한 총 1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다음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표집 하였다.

- 1) 연령이 30세 이상, 55세 이하인자
- 2) 유방암 1,2단계로 종양의 크기 5cm 이하, 절절이 없고, 전이가 없는 자
- 3) 유방암 수술 후 Chemotherapy와 방사선 치료 과정을 끝마친 자
- 4) 심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는 자
- 5) 정신과적인 문제와 청력상의 문제가 없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6)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고 서명한 자

3. 연구도구

1) Type C 성격특성

Type C 성격특성의 사람들은 매사에 수동적이고 맥이 빠져 있으며, 온순하고 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살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느낌(Helpless)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격을 말한다(Min, B. B., Lee, H. J., 2002; Chun, W. T.1994).

본 연구에서는 Takashi HOSAKA 등(1999)이 개발한 Type C Inventory 총 30 문항의 성격조사표로서 4

점 척도의 5개 하위척도(사회성 7문항, 정서성 6문항, 봉사 5문항, 주장 5문항, 힘 7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항상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1점, 전혀 아니다 0점으로 가산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 억제가 강하고 억압적이며 헌신적으로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힘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을 Type C 성격으로 간주한다. Takashi HOSAKA 등(1999)에 의한 Type C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0 이었다.

2) 대처전략

대처전략이란 환경적 요구와 개인 내적 요구, 그리고 이들 사이의 갈등이 개인의 대응능력을 초과하거나 부담이 될 때 이것을 해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Cohen & Lazarus, 1979).

본 연구에서는 McCubbin(1977)의 대처전략척도를 변형한 Berman 과 Turk(1981)의 CSRI(Coping Strategies & Resources Inventory)를 참조하여(Han, M.J. 2001, recite)개인적 이해, 감정표현, 독립적, 종교, 가정생활, 문화활동, 사회활동의 7개 적응 유형에 해당하는 22개의 대처행동을 분류하여 4점 척도(사용하지 않음 1, 약간사용 2, 어느 정도 사용 3, 아주 많이 사용 4점)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를 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연구의 내적 일관성 cronbach's alpha는 .77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2002년 7월 7일에서 8월 12일까지(6주간)사전조사, 실험 처치, 사후조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1) 예비 조사와 연구보조원 훈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심상치료 프로그램의 제한점과 적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2년 4월 15일에서 5월 11일까지 4주 동안 주 2회에 걸쳐 유방암환자 3명을 대상으로 심상치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상이 쉬운 꽃 심상을 비롯하여 시냇물, 장미, 동굴 등 4개의 심상 척도를 2회씩 사용하였다.

연구보조원은 암 병동 간호사 1명과 대학원생 1명, 속기하기 위한 대학생 1명 등 총 3명으로 하였다. 심상의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하여 대상자의 허락 하에 녹음을 하였으며, 연구 보조원이 심상과정 중에 대상자의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및 태도 등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도

록 하였고, 또한 심상 매 회기 종료 후에 간단한 미술 도구를 준비하여 자유스럽게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였다.

2) 사전조사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조사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심상치료 실시 직전에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Type C 성격특성과 대처전략 및 일반적인 특성을 측정하였다.

3) 실험처치

실험처치 기간은 2002년 7월 7일부터 2002년 8월 12일까지(6주)였으며, 심상치료는 1회 120분, 주 2회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실험 장소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조명이 조절되는 조용한 장소인 본 대학교 대학원 세미나실을 이용하였으며, 심상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편안한 의자와 등 받침대를 준비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심상을 받도록 하였다.

4) 사후처치

사전 6주 동안 12회의 심상치료를 실시한 후 사후조사를 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대조군의 경우는 연구자와 훈련된 보조원들에 의해 Type C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을 측정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Windows(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χ^2 -test를 실시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격특성 Type C, 대처전략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3) 심상치료가 성격특성 Type C, 대처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군 15명의 연령은 39세 이하 7명(46.7%), 40세에서 52세까지 8명(53.3%)이었다. 학력은 중졸 이

하 5명(33.3%), 고졸 이하 9명(60.0%)이었다. 종교는 불교 8명(53.3%)으로 가장 높았다. 직업은 무직이 9명(60.0%)이었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원~100만원 6명(40.0%), 100~200만원 8명(53.3%)이었다. 병명을 알게 된 시기는 6개월 전 8명(53.3%)으로 높았다. 치료유형은 입원 및 통원 치료 11명(73.3%)이 가장 높았다. 수술 시기는 6개월전 8명(53.3%), 1년 이상 6명(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증 유무는 통증이 없다 9명(60.0%)으로 높았다. 직계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없다 8명(53.3%)이었다.

대조군 15명의 연령은 39세 이하가 9명(60%)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 7명(46.7%), 대졸 이상 4명(26.7%)이었다. 종교는 대부분이 불교로 13명(86.7%)이었다. 직업은 무직 8명(53.3%)으로 높았다. 월 평균 수입은 50만원이하 5명(33.3%), 50만원~100만원 7명(46.7%)이었다. 병명을 알게 된 시기는 6개월 이전 8명(53.3%)이 가장 높았다. 치료유형은

입원 및 통원 치료가 14명(93.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수술 시기는 6개월전 8명(53.3%)으로 가장 높았다. 통증 유무는 통증이 있다 8명(53.3%), 없다 7명(46.7%)이었다. 직계가족이나 친척 중에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는가의 질문에는 있다 11명(73.3%)이었다.

심상치료 시행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χ^2 -test로 검증한 결과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 검증

-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 2) Type C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에 대한 동질성 검증

Type C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에 대한 두 집단간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Table 1〉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characteristics	Experimental(N=15)	Control(N=15)	χ^2	P
	N (%)	N (%)		
연령	30-39	7(46.7)	1.442	.69
	40 이상	8(56.3)		
교육	중졸 이하	5(33.3)	2.161	.339
	고졸 이하	9(60.0)		
	대졸 이상	1(6.7)		
종교	무	4(26.7)	7.190	.066
	불교	8(53.3)		
직업	기독교, 가톨릭	3(20.0)	2.259	.688
	무	9(60.0)		
	가능사무직	0(00.0)		
	자영업	3(20.0)		
월평균 수입	기 타	3(20.0)	8.244	.083
	50만원이하	1(6.7)		
	50~100만원	6(40.0)		
병명을 알게된 시기	100만원이상	8(53.3)	.000	1.000
	6개월전	8(26.7)		
	7~12개월전	3(20.0)		
치료유형	1년이상	4(26.7)	2.160	.165
	입원치료	4(26.7)		
	입원및통원	11(73.3)		
수술시기	입원및통원	14(93.3)	1.476	.831
	6개월전	8(53.3)		
	7~12개월전	1(6.7)		
통증유무	1년이상	6(40.0)	.536	.358
	있다	6(40.0)		
	없다	9(60.0)		
직계가족 암 여부	있다	7(46.7)	2.222	.132
	없다	8(53.3)		

<Table 2> Homogeneity Test of Type C Personality and Coping Mechanism between the two groups

variable	Exp.(15)		Cont(15)		t	p
	Mean±	SD	Mean±	SD		
Type C Personality	10.36	1.043	9.897	1.360	1.052	.151
Coping Mechanism	1.221	.390	1.318	.377	- .692	.247

<Table 3>The Level of Type C Personality & Coping Mechanism between two groups

Source		Experimental(15)		Control (15)		T	P
		Mean±	SD	Mean ±	SD		
Type C Personality	Pre	2.689±	.213	1.971±	.280	-1.895	.035*
	Post	1.860±	.261	1.889±	.275		
Coping Mechanism	Pre	1.221±	.390	1.318±	.377	8.26	.208
	Post	1.297±	.423	1.285±	.391		

없어 두 군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가설 검증

1) 심상 치료가 Type C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에 미치는 효과

제 1가설 : 심상치료를 받은 유방 절제한 여성의 Type C 성격특성정도는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군에서는 사전 2.689± .213, 사후 1.860± .261이었으나 대조군의 경우 사전 1.971± .280, 사후 1.889± .275로 두 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895, P=.035). 따라서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

제 2가설 : 심상치료를 받은 유방암환자의 대처전략은 심상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 1.221± .390, 사후 1.297± .423, 대조군은 사전 1.318± .377, 사후 1.285± .391 이었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는 0.076 이 증가된 반면, 대조군에서는 0.033 이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따라서 제 2 가설은 기각되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심상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방을 절제한 대상자에게 실시한 후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심상치료가 Type C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에 미치는 효과

심상치료가 유방암환자의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대처전략정도가 다소 증가되었으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처전략이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걸쳐 형성된 자기 나름의 문제해결 방식이므로 고정되고 고착되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의식적인 집중적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만 변화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대처 전략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갑자기 변화될 수 없는 행동과 사고의 틀이므로 쉽게 변화될 수 없었다고 본다. Type C 성격특성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상을 통해 억압된 분노를 표출한 결과 완화되면서 성격특성 중의 정서적 측면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처전략의 연구도구가 사별가족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암환자를 대상으로 측정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며, 자신의 노출을 꺼려하며 상대방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유방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사전측정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파도 관련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Leuner의 12주제에 의한 심상치료를 실시한 후 Type C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Goodkin, Fuchs, Feaster, Leeka(1992)는 11명의 HIV-1에 감염된 동성애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동적 대처양식이 보조 T 임파구와 전체 임파구 수를 낮추었

다고 보고하였고, Cassidy, Meadows, Catalan 및 Barton(1997)은 HSV 환자의 장기 종단적 연구를 통하여 재발에 관계되는 요인은 실제 스트레스 수준보다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과 성격 특성이라고 강조하였다. Kobasa 등(1982)은 질병에 영향을 주는 심리 사회적 저항요인으로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을 제안하고 있으며, Kern과 Summers, Curlette 및 Matheny (1996)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곧 대처자원을 의미한다고 하여,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을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심상치료가 대처전략에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으나 성격특성의 하위 척도인 정서측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심상훈련이 그 개인의 대처방식이나 문제해결 기술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돕지는 못하지만 억압된 분노나 정서를 표출하게 하므로 평소 스트레스로 억압되어 있던 정신적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좀더 건설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므로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인간은 동물과 달리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양식이 보다 다양하므로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시키는 과정을 연구할 때, 개인의 내적자원 중 심리사회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심리적 자원 중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은 건강증진 요인이나 질병에 대한 저항요인으로 자주 연구되어 왔다. Biondi 등(1994)은 18명의 건강한 성인에게서 성격특성과 면역성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8개월 간격으로 측정 분석한 결과 사회적 내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조 T 임파구의 비율이 감소되었음을 발견하였다. Tayler(1990)는 적대감과 부정적 감정의 억압 등이 관상질환 뿐 아니라 암 질환과도 관련이 되며, 특히 억압적, 억제적 성격특성이 면역억제를 일으키므로 암과 같은 병에 취약하다고 하였다(Friedman & Booth - Kewley, 1987). Frankenhaeuser(1979)는 공포와 무력감이 수반되는 개인적 통제감의 결핍은 면역기능을 약화시키고 유기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스트레스와 그에 대처하는 능력과 같은 행동적 요인이 면역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Vollhardt, 1991). 심상치료를 받은 유방암환자의 Type C 성격특성은 심상치료 후 실험군의 평균이 대조군보다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와 같이 실험군에서 심상치료 후에 Type C 성격특성에 유의한 변화를 보였던 것은 유방암을 가진 여성들은 그들의 감정(분노 혹은 공격)을 다루거나 처리하는데 무능력함과 내향적(introversion)특성

으로 숨기거나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심상을 통해 표출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Petting et al. 1984; Cella & Holland, 1988). Faragher & Cooper(1990) 등도 Type C 성격특성과 유방암 발생의 병리적인 상태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심상치료 실시 후 억압된 감정을 털어 놓게 되므로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 것과 동시에 분노억압이 완화되어 Type C 성격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사려된다.

암환자 집단을 사정한 면담자와 평가자에 의해 보고된 아주 낙관적인 태도, 합리화하려는 경향, 표현하지 않는 불안과 비 의존적인 모습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방어기전으로 해석되는데, 정신적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 감정을 반대로 전환하려는 시도가거나 반동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면담 중에 자주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잠재해 있는 불안감, 절망감 그리고 무력감, 경계하는 감정을 억압하려는 노력이며, 심리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을 억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Kiecolt-Glaser(2002)는 부정적 정서가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질병의 진단과 경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의 경험은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질병의 이환율을 높이며, 성격특성 외 대처전략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는 건강회복을 위한 잠재적인 회복력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특히 긍정적 정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잘 견디도록 하여 심리적인 회복력을 강화시키므로 성격특성과 대처양식은 개인적으로 부정적, 긍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정서와 관련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억압, 거부감정, 성격특성과 대처양식은 말초혈관 세포를 변화시키고 세포의 면역기능을 교란시킨다. 그러므로 성격특성과 대처전략은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상황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Faragher & Cooper, 1990).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심상치료는 자기노출을 촉발시키므로 유방암 환자의 성격유형인 Type C 성격특성으로 인해 지니고 있던 억압된 정서가 표출되어 당시 후련하고 억눌림을 해소시켜 Type C 성격의 내향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과거 비 건설적인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전략을 성립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적응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심상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위한 심상치료가 성격특성 Type C 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된 환자들에게 6주 동안 Leuner(1969)의 12개 심상주제로 심상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대조군과 비교하는 비 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이다.

자료수집은 2002년 7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에 6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총 37명 중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15명씩 총 30명이 동의하여 연구 참여 비율은 80%이었다.

심상치료 프로그램은 문헌고찰과 선행연구에서 사용하던 프로토콜을 참고하여 전문가집단의 타당도 조사와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여 주 2회 총 12회의 심상치료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심상치료를 시작하기 직전과 직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대처방식은 McCubbin(1977)의 대처전략척도를 변형한 Berman 과 Turk(1981)의 CSRI(Coping Strategies & Resources Inventory)를 참조하였고, Type C Inventory는 Takashi HOSAKA 등(199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질성검증을 위해 일반적 특성은 χ^2 -test, 대처방식과 성격특성은 t-test를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심상치료를 받은 유방암환자의 Type C 성격특성 정도는 심상 치료 후 대조군보다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치료 후에 Type C 성격특성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 제 1가설은 지지되었다($T = -1.895, P = .035$).

가설 2: '심상치료를 받은 유방암환자의 대처전략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 2가설은 기각되었다.

따라서 심상치료가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대상자의 대처전략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Type C 성격특성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심상치료가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들에게 억압된 정서를 해소시켜 주는 효과적인 간호중재임을 시사하였다.

2. 제언

- 1) 유방암 환자들의 부정적 대처전략을 새로운 문제해결 기술과 긍정적으로 전환하도록 돕기 위한 심상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 2) 유방암 환자의 Type C 성격특성과 다른 성격특성과 비교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Achterberg, J., Dossey, B., Kolkmeier, L. (1994). *Rituals of Healing*. A Bantam Book.
- Achterberg, J., Lawlis, F. (1982). *Imagery and health intervention*, *Topics in Clinical Nursing*, 55-60.
- Bachman, K. (1999). *Using Mental Imagery to Practice a Specific Psychomotor Skill*.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1(3), 125-128.
- Bridge, B., Benson, L. R., Pietroni, P. C., Priest, R. G. (1988). *Relaxation and imagery in the treatment of breast cancer*. *BMG*, 297(5), 1169-1172.
- Carl Simonton, Stephanie Matthews-Simonton, James L. Creighton (1992). *Getting Well Again*, Bantam Books, 91-99.
- Caudell, K. A. (1996). *Psychoneuroimmunology and Innova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in patients with leukemia*, *Oncology Nursing Forum*, Apr. 23(3), 493-502.
- Cohen, F., Lazarus, R. S. (1979). *Coping with the stress & illness*. In Stone C. Cooper, C. L. & Faraghen, E. B. (1992). *Psychosocial stress and breast cance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tress events, coping strategies and personality*. *Psycho. Med.* 23: 653-662.

- Cunningham, A. J. (1981). Mind, Body and Immune response. In Ader, R(Ed) Psychoneuroimmunology. San Diego: Academic Press.,609-617.
- Choi, B. S. (1999). Imagery Therapy. Hana Medical Co.
- Cunningham, A. J. (1981), Mind, Body and Immune response. In Ader,R(Ed) Psychoneuroimmunology. San Diego: Academic Press, 609-617.
- Friedman, H. S., & Booth-Kewley, s. (1987). The Disease-prone personality: A Meta-analytic view of the construct, American Psychological Science, 39-41.
- Frankenhaeuser, M. (1979). Psychobiological aspects of life stress. Paper presentation, Coping & Health , Bellagio, Italy, March 26-30.
- Han, Mi Jeong (2001), Developmental Study of Death anxiety according to coping style,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an's University.
- HolaHan, C. J., Moosm, R. H. (1985), Life Stress and health: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support in stress resistance, J. Personal Social Psychology, 49(3), 739-747
- Holden-Lund, C. (1988). Effects of Relaxation with Guided Imagery on Surgical Stress and Wound Healing.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1, 235-244.
- Hosaka, Takashi, Sugiyama, Yoko, Hirai, Kei, Okuyama, Toru, Okuyama, Sugawara, Yuriko, Nakamura, Yuri (2001). Effects of a modified group intervention with early-stage breast ca. General Hospital Psychiatry, 23, 145-151.
- Kobasa, S. C.(1982). The Hardy Personality: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stress & health. In Saunder GS, suls J.(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 illness. Hillsdale, New Jersey, Lawlence Erlbaum.
- Leuner, H. (1978). Basic principles therapeutic efficacy of guided affective imagery therapy, In: Singer, J. and Pope, K., Eds., The power of the human imagination, plenum press, New York, 123-166.
- Leuner, H. (1984). Guided Affective imagery : Mental imagery in short-ter psychotherapy, Theme-Stratton, Basic principles therapeutic efficacy of guided affective, New York.
- Min, B. B. Lee, H. J. (2002). Obsessive Personality Disorder, Hakgisa
- Ministry of health (2000) Annual report of ministry of health.
- Naparstek, B. (1994). Staying Well with imagery. New York : Warner Books.
- Pennebaker, J. W. (1999), Disclosure & Health, Hakgisa(Kim, J.h. Park K.B)
- ReShan, L. L. (1977). You can fight for your life, New York: M. Evans & Co.
- Rutherford, D. E. (1988). Assessing Psychosexualneeds of women experiencing lumpectomy, a challenge for research. Cancer Nursing, 11(4), 244-249.
- Schultz, J.H.(1970). Autogenic methods, Grune and Stratton: New York.
- Scott, D. W. (1983). Quality of Life following the diagnosis of Breast cancer. Topics in Clinical Nursing, 20-37
- Stetson, B. (1997). Holistic Health Stress Management Program : Nursing Student and Client Health Outcomes.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5(2), 143-157.
- Suh, M. J., Lee, J. H., Kim, Y. S., Lee, H. R. et al(1999). Adult Nursing, Soo Moon Sa Seoul, Korea.
- Takashi HOSAKA, Isao FUKUNISHI, Takayuki AOKI, Richard RAHE and George SOLOMON(1999). Development of a Type C Inventory : Cross-Cultural Application, Tokai J. Clin Med. 21(2), 73-76.
- Taylor, S. E. (1990). Health Psychology: The science & the field. American Psychologist, 45(1), 40-50.

Vollhardt, L. T.(1991). Psychoneuroimmunology: A literature review,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61(1), 35-47.

Zachariae, R., Kristensen, J., Hokland, P., Ellegaard, J., Metze, E., Hokland M. (1990), Effect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 in the Form of Relaxation & Guided Imagery on Cellular Immune Function in Normal Healthy Subjects.

- Abstract -

The Effects of Imagery Therapy on Coping Mechanism and Type C Personality in the Women with Mastectomy.

Kim, Eun Sim · Pai, Hang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imagery therapy on "coping mechanism and type C personality of the women with mastectomy. To achieve this purpose, 2 hours sessions of imagery therapy were given to the patients with breast cancer twice a week for 6 weeks.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July, 7th to August, 12th 2002. The participants were 30 patients, 15 experimental group, 15 control group who were treated at the G University hospital in J City.

This study was designed using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with non-equivalent Pre test-Post test Design.

The themes for the Imagery Therapy Program were composed of Leuner's(1969) 12 Imagery Themes: flower, green-field, stream, mountain, house, woods, significant figures, rose, lion, ideal self-image, cave and volcano.

The data were analyzed with χ^2 -test and MANOVA using the SPSS program. The course of image change of the 12 imagery themes was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ypothesis, 'The score of type C personality in the women with mastectomy who received imagery therapy will b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supported($p < .05$).

Second Hypothesis, 'The score of coping mechanism' in the women with mastectomy who received imagery therapy will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was rejected.

In conclusion, imagery therapy is suggested as an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to change type C personality of the women with mastectomy, but not effective to improve coping mechanism. Therefore, the program for the women with mastectomy should be developed to change their coping mechanism, method of problem solving and Quality of life.

Key word : Imagery therapy, Type C personality, Coping mechanism, Women with mastectomy.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erontological Research Center